일반
대관절던 메시지: "너의 말뚝을 건고하게 하고"
에즈라 테프트 벨슨 대관절.................................................. 2
"저는 하나님의 찬란 신권을 찾았습니다" 엔 랭턴 투이스 ........................................ 8
역사의 도시: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밸런 케이 가드너........................................ 17
통가 섬의 성도들: 신앙의 유산 에릭 버설웨이........................................ 36
아직도 젊다 스타브 케이 크리스천슨........................................ 46

청소년란
리사의 친구들 리차드 엑 롤니........................................ 12
축복사의 축복에 따라 인생의 항로를 설계함
리차드 퍼라지 장로........................................ 18
"머리나 깨우시죠!" 제리 맥킨........................................ 32

정기 특별기사
질의 응답: 독신 여성의 인생의 목적........................................ 22
방문 교육 메시지: 사랑 - 비기강의적인 봉사........................................ 25
가족 지침서: 스트레스와 실직에 대처함........................................ 26
아시아 지역 회장던 메시지: 신앙의 축복
엘런 알 리버트 회장........................................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8

어린이란
물론경 이야기 : 아宝贝아다와 노아 왕........................................ 50
심심풀이 : 강을 끼고 있는 수도들........................................ 55
함께 나누는 시간 : 진지한 기도 로럴 폴링........................................ 56
지상의 기족 키티리 에이리들........................................ 57
우리들의 친구
조수아 메니스: 신앙의 보물 세논 다블류 오슬러........................................ 62
1991년 8월호

에독자 편지

나무나 행복합니다

아이다호에서 선교 사업을 하러 왔다
나무나가 저는 무척 슬프고
참고받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이름지리 위안을 얻았습니다.
그런데
리아하나(스페인어판)를 읽고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훈훈한
찰사는 제가 어디를 가는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리아하나가 있기에
나무나 행복합니다!

에드나 라리바노
라 시에바가 외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점지

리아하나(스페인어판)는 참으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는 점지입니다.
저는 복음의 전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 전해 주는 이 중요한 점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리아하나에 실리는
말씀 기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원리 뿐만 아니라
영상을 준다 하는 데 도움을
럼리는 원리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가정에 점지없이 리아하나가
도착되도록 고호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카르멘 마리아 토레디노
구를소 아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신부

최고의 그림과 사진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물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는
리아하나(스페인어판)를 매일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름입니다.

저는 현재 와드 상호부회의 영역적
구할 교사인데, 이 임기에 나는 사례나
이야기나 기경의 인용문을 중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사진과 그림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르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한 저 이외의 다른
회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저는 편집부
앞으로 봤던 그림과 그림에 관한
보충 자료 책임을 주제별로 포함시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면에 쓰는 두 줄에 걸쳐 대형
그림을 포함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FontOfSize가에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나간 리아하나를 한 권의 승객으로
로의 시간을 보내면 적어도 몇
때마다 책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책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리아하나를 위해 고호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나 산체스 데 라리에
고도이 크루즈 센트럴 와드
아르헨티나, 멕시코

편집 노트 :

재미에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의
사진이 잡아되었을 때는 언제 책임이
이미 준비된 방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매님의 제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축복을 받기에 축복할 지가 됨

우리 가족은 복음에 대한 강한 갈등을
기원했으며 평화가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
모두가 함께 물을 가지고 홀로를
의심하셔서 그리스도의 친한 복음과
상에하신 하나님의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개시하여 사랑의 길을 떠나며
그리스도의 친한 복음과
갈등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반게에 얻어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후안 이그나시오 풀리다 에스코바
말라헤르로사 마시고 스페인어
멕시코, 페포포다 카리파스
대관장단 메시지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에즈라 배프트 밴슨 대판장

스테이크라는 용어는 성정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속으로 망 속에 단단히 박혀 있는 여러 개의 말뚝이 연결된 빗줄에 의해서 떨어져진 거대한 천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말밀의 시온을 지구를 예워싸고 있는 거대한 천막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천막은 수많은 말뚝이 연결된 빗줄에 의해 허박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뚝(스테이크)들은 여러 지역에 조직을 갖추고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지금 이 여러 시온의 스테이크로 이스라엘 백성이들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테이크의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정전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들 가진 양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어릴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칠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최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교티와 성약 68: 25~26)
여기서 우리는 스테이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사람은 아는 자라나” 둘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도와주고 구원을 위한 의사를 집행하기 위해 조직됩니다. 스테이크는 성도를 운전히 하기 위하여 조직되며, 우연히 이르기 위한 발전 과정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스테이크가 조직되어야 핀언들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승인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란 정부의 조사에 따라 교회의 성의 교회의 조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가족 및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한 간접을 얻고 그것을 강화시키며, 저상의 사림 기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성의 그 아름다운 도덕성이 하여 각성함에 하여 그 경계가 넘어지지 않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신성한 일이며 그 아름다운 도덕을 넘어지지 않으시라.”(교리와 성약 82:14)


회원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성결함에 대한 표준과 행위로 나타내 보일 때, 신성의 스테이크는 강하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여인은 면목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이사야 52:1)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서도 예언자들이 그 사용에 온 표현입니다. 예수를 요셉 스킴스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마지막 날에 불러 모을 자들을 가리키니, 저들은 또 다시 사원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구복을 이룩할 신권을 지니고 자녀. 힘을 잃었다 할은 신권의 권력을 지니는 합이니, 계통을 따라 당연히 사원이 가질 권능이요.”(교리와 성약 113:8)

이 밖에도 주님은 또다른 계시를 통하여 스테이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서 빛을 불하라. 그리하여 내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

“또 사원의 명과 사원의 스테이크에 집합하게 하여 폭풍우가 거리치고 분노가 되지 않게 그 대로 온 밤에 쓰러져 내려올 때에 받쳐가지 되며 분노를 피하는 데 저주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6)

이 계시에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여 그 빛이 여러 국민들을 위한 기, 즉 표준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표준인 이 사람들은 정직성이나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 주목하는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상 사망들이 바라보아야 할 성결함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원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에 이르 주님은 사원의 스테이크가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되지 않게 그 대로 온 밤에 쓰러져 내려오기 때에 받쳐가지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죄가 되게 하라.”라고 계시했습니다. 스테이크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적과 또한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어자이며, 이 방어기는 갑음을 강화시키고 각성의 결속과 개인의 의료용을 충진시키는 신천 계통을 통해 제공되는 지시 사항입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의 서면으로 주신 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

이 계시가 주어진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탄은 계속 멍리한 기세로 “자기의 영토”인 이 지상에서 권세를 졌처 보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회원 선교 사업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이처럼 강력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인도하소 삼고 신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만이 사탄의 악한 영향력에 빠지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서문으로 주신 계시를 통해 또한 천지 “그의 영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지도 가운데 허물지지 못하시며, 그의 이름을 받은 종들에게 스테이크 및 와드의 관리 역할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일에 하셨습니다.

물론에 나오는 예언자 니파이라는 성도들이 스테이크 단위로 은 세상에 떠들어 잘 빼앗기지 못하도록 보았다. 성도들은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과도한 풍문에 의해 위협받을 때에 주님께서 보호의 빛을 빛나시게 될 날을 보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니파라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의 권세가 높은 권세의 교회의 성도들과 믿음에 흔들리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에 임하십니다. 보나자님의 신성 영광중에 외야 하나님의 권세로 부향하고는 나니.”(니파이일서 14:14)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에 위대한 계시와 백악가가 있게 되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은 주의 권세로 의를 지키시나.”(니파이는서 22:17)라는 주님의 약속은 분명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볼 때, 최소한 다음 네 가지 목적이 스테이크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각 스테이크는 특정 지역내의 성도들에게 소단위 교회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세 명의 대체사가 관리하고 열 두 명의 고등 평의원이 이들을 지원하며, 그 경제대내 살고 있는 회원들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의복을 짜며 복음을 가르치므로써,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완전한, 원리적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의로움의 모범과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3. 스테이크는 방어진이 되어야 합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이 지역 신권 역원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각자가 취신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성악을 지켜 나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결합을 거부하거나 애에 불붙거나 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입니다.

성전은 스테이크가 있는 곳이면 세워지며,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복 및 축복은 성도가 속성에 이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스테이크마다 성전을 하나씩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참으로 기적과 같이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축복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스테이크는 지혜를 쌓아내는 풍부한을 피하는 판단의 지지입니다. (교파 115:6 참조)

이와 같은 스테이크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회원 선교회 사업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열쇠가 되며, 또한 회원 개개인이 성장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아들과 손자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권력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소년들은 각자 선교사 기금을 위한 예금 동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기초 페내치가 되어야 하며, 사람과 사람의 소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각자가 가정의 지지 아래 기도하고 복음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 모임을 가져야
합합니다.
5. 성전 의식 및 축복을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켜 정직하고 성실하며 순결한 생활을 하고 또한 주님의 신권 지도자를 지지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복지재단 신원에 성임되기 위한 합당한 자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6.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 성전 의식을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조상의 성명을 성직으로 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탐구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상과 영원히 결부되지 않고서는 결로 승영에 이르 수 없습니다.
7. 가족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1936년 이후로 교회는 회원들에게 일년차의 양식과 의복 및 가능한 지역에서는 연로까지 비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제자로서 말씀대로 실천할 때마다 주님의 주시적이 뒷받침을 하시며, 또한 신지어 제한을 넘게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8. 신권 소유자는 임 계획된 가장 복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회회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각자가 지명받은 모든 회원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9.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안식일을 가족에게 지키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주이전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말씀하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 성약 88:8 참조) 기독교 우산으로 봉사한다면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10. 성인 회원들은 모두 완전한 섬임조를 바치며 긍정 현금을 후하게 나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 사온의 딸들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맘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흔드시지 않도록 하고, 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광하신 아버지께서 나와들과 믿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모로아이 10:31) *

교회의 스테이크는 일주일 데트포트 병신 대관절단의 말씀에서

가정복음교사를 위한 제안
1. 주님은 다음 네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스테이크를 조직하셨다.
   ...스테이크 내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결속시키고 고통을 받으시기 위하여.
   ...리브의 모범을 보이도록.
   ...회원들을 위한 방어진대 되도록.
   ...당 위에 뿌어져 내리는 폐허들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2. 스테이크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지명한다.
   ...복음의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들과 손자들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준비시킨다.
   ...가정이 피난처가 되며, 사랑과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한다.
   ...자신과 죽은 조상을 위해 성전 의식 및 축복을 받도록 노력한다.
   ...자립한다.
   ...교회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한다.
   ...완전한 섬임조를 바치며 긍정 현금을 후하게 낼다.
"저는 하나님의 참된

"처음에는 신권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전에 쓰지 않던
교회의 신권적분에 해임된 후 처음으로 다시
신권을 소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후시에는 말한다.

18년간 천주교 사제로 지냈던 후시에는 “영적
공허감”을 느끼고는 성직을 포기했다. 그 후, 그는 회복된
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신권을 찾게 되었다.

한 후시에는 1922년 8월 23일
중국의 의판 농촌 마을인 태어났으며, 결심이 되었을 때까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 뒤
후시에는 한 사립 학교에서 4년간
공부한 후, 천주교 학교에 입학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천주교에서 은혜를 받았다. “저는
천주교 신학자들의 흥분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시에는 깊은 과정은 진 세월이
걸었으며 협반했다. 먼저 4년 동안 후일에 있는 카톨릭
신학교에 다녔으며, 중국의 수도 북경에 있는 천주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1년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도시를 점령하자 상해로 탈출하여 그곳에 있는 오로라
예수회 대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상해마저도 점령하자 후시에는 홍콩에 있는 카톨릭
신학교로 옮겨 갔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곳의
신학교가 마약으로 이전하였다. 마약에 있는 동안
후시에는 천주교 사제에 서종되었다.

사제에 서종되고 나서 후시에는 아테네 로마로 가서 4년
동안 이타리아와 러시아의 화학을 공부했으며, 그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어와 그리스도,
히브리어, 영어, 스페인어 및 독일어를 공부하여 성경의
원문과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후시에는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1967년, 후시에게는 마침내 모국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실현될
기회가 주어졌다. 대만에 있는 후 천주교 대학교
총장인 유명 추기경이 그에게 그 대학교에서 철학과
프랑스어를 맡아 가르쳐 달라고 제의했다.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후시에는 점점 성숙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성을 나누기
시작했다.

후시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18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속 부르는 사제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며 보냈습니다. 매우 바쁘게
생활을 했지만, 행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공부할
기회도 있었고, 선생도 해 보았고,
학생과 교수, 군대, 신학교 교장 등
매우 다채로운 삶을 겪었지만
마음에는 영적인 공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어떤 책에
해당 급지 조항과 같은 후시에가
바라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규칙과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시에는 가능하면 모든 책을 읽고
생인 서품된 사제로서 그를 꾸짖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사람이 독차지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장세기
2:18)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 특별한 성경 구절이 게제 생성한 현실로 다가온
것은 제가 묻시 아픈 데도 가까이에서 들보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저는 심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삶을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영원히 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복잡적인 느낌들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서
마침내 1973년 그는 사제로서 맺은 서약을 풀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후 천 대학교를 사직한 뒤 곧 이어 대만에
있는 천주교 국립 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년 후,
신권을 찾았습니다

후시에는 같은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녀의 나이는 실살이었다.

“그러나 성적을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성적에 몰두고 있었는데, 그게까지 불바쳐 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혼이 허락되는 다른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불가하다고 생각해 보았지만, 천주교에서 형성된 믿음으로 인해 그 같은 변화를 되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어느 날, 후시에는 혼자 집에 있는데 두 명의 청년들이 문을 두드렸다. “그 젊은이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느냐고 묻기에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관심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관계 생각을 하다가 잠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이며 이곳 빛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서 아파트 발코니로 나가 살펴보니 그 청년들은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며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아파트에서 나오기를 오랜동안 기다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오게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젊은이들은 신교사님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저는 그 신교사들의 종교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눕기 번뇌 대화를 통해서는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신교사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마태복음 7:15 참조)는 주님의 훈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교사들이 다시 방문하였을 때, 후시에는 그들을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뒤를 밑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들어와도 했다. 그리고 저녁 내내 후시에는 신교사들에게 첨된 종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후시에는 자신이 천주교 사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신교사들은 그가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풍기를 얻게 되었다.

그 중 한 신교사였던 도날드 비 세나티엘포 장로는 당시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마치 그분이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마우저적인이며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교사들이 다시 방문해도 좋겠다고 물자 후시에는 좋다고 대답을 했다. 그 다음부터 매주 방문이 이루어졌다.


후시에는 물론 결과 교회와 성악을 읽기 시작했으며, 특히 교회와 성악은 주님께서 말씀을 줄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했다. 그가 읽어볼 만한 다른 책을 추천하자 신교사들은 리그랜드 린자즈 장로가 쓴 기이한 답을 한 권 갖다 주었다.

세나티엘포 장로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후시에 형제가 신권을 받아 그 신권에 항명한
일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다. 후시에 형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였다.”

후시에는 그가 원은 것을 아내에게 설명해주었으며, 그린대 아내도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후시에 형제 부부는 함께 공부하였으며, 이해력을 넘어 주신 것을 간구했다. 마침내 후시에의 아내는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참여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후시에 부부는 1977년 12월에 절례받았다.

이들 두 부부의 생활 가운데 이 특별한 일이 있던 때부터, 후시에 형제 부부는 계속해서 강한 간증을 기원받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기를 즐겼다.

“우리 부부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늘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와 제공을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후시에 형제는 말한다.

후시에 형제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는 기독교를 믿는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 국제 대회에서 일곱 번이나 강연을 하였다. “우리 교회가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세롭고 독특한 위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러한 학자들에게 간증을 전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무차와 이드 회원인 후시에 형제는 현재 타이베이 시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중국어판 불문집을 재번역하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신 사랑입니다.”라고 후시에 형제는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정을 증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리사의 친구들

리차드 엠 례니

랜드 탐험자에 사는 리사는 루테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사의 친구들은 만나보려면 약속을 해야 하며, 리사의 친구들이 사는 장소에 야경이 아름답지 않도록 평소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리사는 그 친구들을 타일러의 전시장과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약속시킵니다.

그런 다음 리사는 수영장 앞에 서서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리며 호가를 끼웁니다. 그리면 리사의 친구들은 매끄러운 희미한 전기 페퍼스와 같이 물 속을 들고 나와 여러분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 이사람과 같이 서로 방향을 돌려 여러분에게 물을 훔쳐보면서 공중으로 물을 쏘아 올립니다.

이제 리사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신기한 동물이에요. 메일 돌고래들과 함께 생활하며 같이 일하고 또한 훈련시키며 분위한 마리한 마리를 소개한 곳이죠."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리사는 돌고래들에게 각각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돌고래들이 각자 응답합니다.

"이 돌고래의 이름은 니시경입니다. 내게는 사전 영어학에 가장 좋아합니다."라고 리사는 말하자 그 돌고래는 기꺼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리사는 20살 때 돌고래 수족관 일자리에 대하여 처음 돕고 무척 홍분했습니다. 리사는 충분한 사전해를 갖추고 있었지만, 리사는 그의 고향에서 생활학을 공부했으며 그 외에 또한 수학, 과학, 물리 및 화학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일자리에 도움이 되었으며, 이 밖에도 저는 늘 동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다닐 수만 있다면 대학 학비를 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리사는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능력을 빼앗기 때문에 그곳에 고용되었습니다.

리사는 돌고래와 사귀는 것이 곧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일, 리사는 돌고래의 음식을 준비하고 돌고래에게 비타민을 먹이고 같이 게임을 하고 야경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물을 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와 함께 있지 않은 때는 돌고래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실험실에서 행한 수질 검사 결과를 토론하거나 또는 동물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익으면서 보냈습니다.

또한 리사는 동료 조사자 및 연구원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돌고래 수족관에 모인 여행객과 판광객에게 돌고래 쇼를 소개하는 소 진행도 맡아 합니다.
가끔 리사는 텔레레 스테이크 부리안 아버지 폐가 로토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텔레레의 유명한 산내 시장으로 가서 세계 각지에서 오는 농산물이 풍부히 있는 사이로 나 있는 농토를 다니며 구경하기도 합니다.
리사는 돌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 동물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생선을 줄거 먹고 있지만, 이제 청어는 먹지 않습니다. 청어는 돌고래 밥이기 때문요.”
리사가 좋아하는 음식은 버섯입니다.
리사는 친정으로 동물을 사랑합니다.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당시 리사에게는 음식같이 없었습니. “어릴 적에 저는 제가 그 맛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제 맛을 사랑하실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블러프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역시 주님의 모든 장조물을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지하 여리분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까요.”
리사와 함께 돌고래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면 그녀가 돌고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돌고래들은 미국의 플로리다와 멕시코만에서 들여온 것으로서, 배로 수송해 오는 동안 몸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돌고래의 몸에 유액을 바릅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원래 족은 생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족은 생선을 먹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새끼 돌고래에게는 우유를 먹입니다. 그 중 하나가 병이 나면 다른 돌고래들은 그 돌고래를 가볍게 여기며 돌보아 줍니다. 돌고래에는 매우 디리한 동물로서 일편의 취학장소와 거의 세소리와 같은 높은 마찰음을 내어 서로 의사 소통을 합니다. 이 밖에도 돌고래는 몸 속에 있는 천연 수중 음과 탐색기를 사용하여 바닥을 쌍어 다닙니다.
돌고래는 신체적으로 점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들은 돌고래에게 이 특성을 잘 살려서 꼬리로 빗질음질 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도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련사는 이러한 성향을 이용하여 돌고래에게 공과 음악, 바구니 등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리사는 돌고래를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리사가 몰랭크에 물을 부으면 돌고래들이 물려와 얼굴과 몸으로 물결이의 감촉을 맞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사가 명령을 하면 돌고래들은 꼬리로 물을 튀기기도 하고 수영장 밖으로 빼려나와 관광객들이 만져 볼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리고는 동안 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래들을 매우 부드럽게 대합니다.
“돌고래들은 제 친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리사는 매일 각 돌고래에 대한 일지를 쓴다. “저는 그저 친구들의 자취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리사는 말한다.

우리가 돌고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리사는 말한다.

리사는 깨진 진주에서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은 생명을 지닌 용지라는 생물... 돌로 번성해 하라.”(모세서 2:20)라는 구절을 읽고 주님께서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지면에 물체로 두기 전에 영천으로 만드셨다.”(모세서 3:5)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리와 성서에 있는 성구를 언급합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지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존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교리와 성서 104:13)

“돌고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돌고래가 우연히 창조되었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잃다 보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른 동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이같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리사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돌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사가 생활을 전적으로 돌고래에게만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리사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계획이며, 연철기는 경제학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리사에게는 그녀를 사랑하고 창착하는 기술이 있으며, 성취해야 할 교회 부름도 있습니다.

리사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또한 연철기는 성전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갖게 될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 합니다. 그 밖에 리사는 탐험과의 교외에 있는 동물들과도 친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농장을 방문합니다.

리사는 돌고래 수족관에서 하는 일을 일시적인 일자리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하려고 계획하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바꾸어 이변에는 연구하고 훈련시키고 사랑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리사의 말에 의하면 “돌고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별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하시는 상황의 우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

원문자 주 : 이 이야기가 쓰여진 이후 리사는 북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유타주 서부 선교부에서 병사하고 있다.
사의 도시 예루살렘.
골목마다 조금씩 읽어
거리에서 채은 옷에
전하면서 건 관광객들, 각자가
속해 있는 종교 단체의 성의를 입은
성직자들, 기관총을 매고 있는 젊은
병사들, 유다인 특유의 테무리 없는
모자를 쓴 남자들, 흉터격리하는
옷을 입고 목자의 미래 건강을 한
아라인 등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빵비고 있다. 어떤
여인들은 아예까지 취한은 일그
가리개를 하고 있으며, 사복무
차림을 한 사람도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이처럼 흥미로운 인과를
해치며 놀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수크라고 불리우는
시장을 가로질러 가다 보면 여기
저기에서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와 즐띌을 하는 소리로 귀가
밍할 정도이다. 물건의 종류도
하나임을 짓을 정도로 다양하다.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점 앞에
물건을 나가 놓아 판고 효과를
내기도 하며, 나뭇가지로 뻗어 만든
광주기에는 왕중, 호두, 과일, 야채
등이 수 хр히 뻗어 있다.
또한 수를 빼는 기다리는 옷들이
머리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며,
여기 저기에서 읽는 소방위에는
올리브 나무로 세겨 만든 종교적인
목상들이 가득 점철되어 있다. 이
밖에에도 놀로 만든 주방기구와
구리 및 우로 만든 접시, 반점반학
은거나 아한미아 도자기와
페르시아 음악 등이 종종이 눈에
있으며,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
양가족으로 만든 옷, 동방에서 온
진귀한 양탄자 등도 이곳에 한 폭을
하고 있다.
할게 쓰는 아채에 양념을 섞어
뛰리는 파라필을 만들거나, 쉬스
캐미라는 음식을 묻고 있는 사람들
있다. 작구간 향기찬 향기가 할 수
없는 향료 냥새와 뒤섞여 피한다.
상점들은 가게 문 앞에 서서
행인들을 부르며,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각지 음악이 줄어
나온다.
아래 베니와 나는 기독교, 유대교
및 이슬람교와 관련이 있는 물건을
판는 조그만 가게로 들어갔다.
우리가 가게 앞을 천천히 구경하자
주인인 흔한 기가 작고 마른 아랍
남자가 여러 가지 물건들의 사용법과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코란에 대해서도
반해 주었다.
우리는 물건을 꼭라서 가격
홍장리는 의외적인 행사를
시작했으며, 결국 적당한 가격이
정해져 주인에게 빼앗긴 새 지폐를
여리 찬 건대 주었다.
주인은 우리에게서 받은 돈을
새로보니 한 장을 떠들어 주었다.
우리는 의외의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인은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손님."하고 말했다. 새 돈이라 두
장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라고 베니가 말했다.
"당신의 정직한 행동에ишь미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자 주인 남자는 이렇게
t대답했다. "친만의 말씀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가 보다는 저,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정직한
것입니다. 부정한 돈으로 가주를
부양하고 실지는 두렵지 않으실가요."
그 시끄럽고 환상한 거리로 다시
나오면서 우리는 물건값을 걱정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세 치레에
자신을 잃지 않았던 한 아랍 친구에
대한 추억이었다. *
축복사의 축복에 따라 인생의 항로를 설계함

리처드 피 린지 장로
칠십일 정의회

제

가 어릴 적에 저의 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으며, 머칠 후 열리 산문 저의 형 또한 다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는 1960년대 초반이었고, 미국은 한반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매우 힘들었으며 돈 또한 힘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의 어머니는 많은 다섯 자녀를 위하여 참으로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나에게 홀든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가 나중에 어떻게 될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제게 지금까지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에 생긴 일이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 년 쯤, 저는 아버지의 사촌이신 이스라엘 백인이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저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스테이크 축복사로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갔 때처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차려 입고 이 위엄있는 분이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사의 축복을 주실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일곱 살로 축복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못 되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권고합니다. 급식 간증회 때에 느꼈던 것과 같은 매우 경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축복의 말씀은 짧았으나, 제가 삶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록 어렸지만, 멋진 아저씨가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자라는 동안 주님의 영에 함께 하시고, 복음의 제 마음 속에 깃들며, 또한 주님의 사업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저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저의 미래에 대해
• 축복사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감독과 의논함으로써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감독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며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감독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줄 것이다.

• 감독은 축복의 신성한 본질을 감사히 여기며 않을 만큼 온라인 교회에 다녀거나 충분한 나이가 된 사람들만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다.

• 가족의 일원이 함께 참석할 수 있지만 축복은 은밀한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 감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식을 하고 받을 수도 있다.

• 가까운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축복문을 비교하거나 함께 읽어셔는 안된다. 교회의 모임이나 공공 모임에서 읽어서도 안된다.

• 축복사의 축복은 행운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리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모든 축복사에서 마찬가지로 축복의 성취는 개인적인 간증과 그가 성령과 얼마나 가까이 하는 기에 달려 있다.
입금하시면서 제가 언급하는
이스라엘 판사는 될 것이며, 자녀를
가져 되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실제로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일깨워 주신
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만일
의롭게만 살아간다면 주님이 저를
도와 주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은 단지
263개의 단어에 지나지 않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해가 흐르더라도 축복문을 읽고 그
내용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전달되었습니다.
일곱 살 난 어린이에게 "이스라엘
판사"라는 구절은 이해하기에 너무도
의미가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권을 받은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저는 그것이 감독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감독이 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감독이 될 것이라면
다음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직과 높은
표준과 도덕적인 순결을 포함하는
인생의 향토를 그렸습니다.(그리고
마침내 저는 저의 축복사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세계 이차 대전중, 미
해군으로 복무하였는데, 그 동안
축복사의 축복문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유타주 텔레즈빌에서
자라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되어 수술을 않은 평온한 개척자
마을 출신이었던 저는 일대하나 은강
욕실과 불경스러운 맛을 보통으로
사용하며, 이런 이들은 자신의
축복의 축복은 단순히 미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자의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 열려있는 것이 있음을 드리며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자에게도 큰 이익이 됩니다.
1. 지자는 축복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단지 그 먹이에 대한 것이 아니며, 또한 축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되로 또한 축복이 되어 있는지 그분들에게 여우리 보낼 것입니다.
2. 부모님이 그분들의 축복자의 축복에 대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축복자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주셔도 좋을 분문이 있는지 여리분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에게 약속된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부모님이 여러분 자손을 약속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등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만일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 아니거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로도 두 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감독이나 축복자에게 상의하십시오. 부모님을 적절하게 관리하시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4. 저는 축복자의 축복을 받기에 가장 잘한 것은 갖습니다.
함께 부탁하고 느낀다면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부모님이나 감독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감독이나 축복자에게 상의하십시오. 부모님을 적절하게 관리하시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5. 저는 주님의 제기하시며, 바람 알리 주심 것이며, 그러면 제가Jamie가 이루어지는 대로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감독이나 부모님에게 거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전이 받아들여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축복자의 축복은 수 banyak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의 표시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축복자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둘러싼 친절함을 갖게 하고 또한 수많은 개체를 지킬 경우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큰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독신 여성의 인생의 목적

저는 여성으로서 인생의 최고 목적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신 여성으로서 제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흔히있는 질문에 대한 자문으로 소개하는 것임.

미리 엘런 에드인즈 자매는 유터주 프로로 소재 신학사 훈련원 원장 보조이며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 임원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외모나 행위 또는 태도나 생각의 여지에 따라 우리의 이는 단순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님과 주님의 계약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점점 전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독신 여성으로서 만일 제가 기혼연대 미혼연대의 여부와 자녀가 있는가에 근거하지 않은 한 남자와 사랑과 결혼의 가치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판단한다면, 신학적으로 신성성을 지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과 자녀가 행복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혼은 안했고 자녀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가치나 목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녀가 있지만 살아온 가정은 건강하고 사랑을 소중히 보고 원로님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많다고 있습니다.

일부 말일성도 독신 회원들이 젊에는 빠져 자기를 외부와 격리시키고 자금금과 자아상을 잃은 데 범람받고 범반당했다고 느껴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련인 것입니다.

독신 여성들이 스스로를 가꾸는 데 범용하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 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같이 보일 때,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 자신을 허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많은 유익을 얻으며 매일매일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설이 있으니 그것은 남의 태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며, 분명히는 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나눌 때마다 비로소 우리는 자기 분위의 삶, 행복하는 마음, 영적인 고뇌 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세상에는 아무런 생애를 다 바쳐도 흔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만 생각하여 자신의 소망과 필요사항만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를 지나치게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납과 함께 내려오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또는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의 위대한 목표 중 하나는 사랑과 존경으로 단합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에서 행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하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38:24-27 참조) 우리는 우리가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듯, 우리가 남을 돕고 죽복해 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독신자들, 특히 독신 여성들을 도와서 그들의 자중앙을 갖고 소속감을 느끼며 평가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정리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 할 때에는 더욱 안정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진득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게 기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며, 또한 구세주의 계림을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들을 준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어느 때라도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되워져 볼 때, 자신이 평화롭게 되는 의미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감사하며 받으시리며, 믿고 따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대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은 빛이 다 만족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과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온실을 받았고,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시간과 자유 의지로 주어졌고, 선악과 물, 그 밖에 음이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마치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십하여 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해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에비히 놓으셨다는 자세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텔레프 벤손 대관장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여성이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여러분이 학당하고 충실하게 전인하며, 여러분은 친절하시며, 사랑이 묻어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게 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세까지 기다려야 풀었던 동반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학당시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직 사랑만이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영원한 전망을 마음 속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리 벤텔 벤손, "교회의 독신 성인 자매들에게", 성도의 땅, 1989년 1월호, 110쪽)

우리는 어떤 특정 상황이 우리의 행복이나 자신의 가치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되는 모든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신앙과 감사의 마음을 추구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주님이 사랑을 크게 느끼며 우리의 가치 및 인생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랑 - 비이기적인 봉사

“사랑의 결코 실측하지 아니함이라.” (포로나이서 7:46)

우리는 이 성서의 의미를, 이 성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다. 하지만 우리는 태안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이 성서가 참된 것이라고 믿는 감동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사랑은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는 자매를 막론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리이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한 때에도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봉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포로나이서 7:47)”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참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찾아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소위토에 사는 줄리아 마브윌라 자매는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녀가 일하는 분야는 물병 퇴치와 주민들의 사회 문제이다. 경부와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외에도, 그녀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실직된 많은 부모와 아이들과 같이 정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그들의 봉사를 정원 정원 경건 기술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연히 많은 새로운 가정에 정원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그들이 정원을 만드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보면서, 그들도 정원 만들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줄리아 자매는 일시적인 고통을 필요로 노력하였음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인 필요 사랑과 영적인 필요 사랑을 충족시켜 주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몇 경적을 다져 주는 참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명예한 방법으로 봉사함

봉사의 기회는 봉사의 경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세계의 자매들이 일반 교사로서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코난의 개인적인 희생을 하면서 다른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동기를 환하게 가르치고 강화시켜 주며, 주님에 친히 섰는 도구로서 봉사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매일매일 놀림없이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쳐 혼려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자매들은 종종 교육계나 활동 분야에 진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르고 훈련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사랑으로 가득 찬 자매들은 좌절하고 비판에 잠긴 사람들과의 교회를 들어 준다. 그들은 어떠한 비판이나 비난도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40)에게 봉사한다. 그들은 “전혀적자가 물들어 주며 처진 곳이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하게(교전 8:1)”하기 위해 애태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명예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쉽게 노력할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과 같은 연민으로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러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하여 “저가 나타나신 때에…. 우리가 지와 같이 될”(포로나이서 7:48)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가 예수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배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
스트레스와 실의에 대처함

호화로운 엔비에 조명을 받아, 그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잘 차려진 식사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식사 시간이 상분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반일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즐거운 영화를 감상이한 기분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감자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생겨나라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통해 인간사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잘 차려진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기 위해서는 아무리도 3분 이상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한 상황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하게 되면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기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자녀가 많은 활동에 참여해 높고 생각대로 소화해 나가지 못하는 편에서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 이 밖에 가족 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신경 파악이 되며 인내력을 갖고 지쳐게 될 수도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 끝이 없다. 어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철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의 순위를 매기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스트레스는 어떤 시간 내에도 인하여 야기되다고 보는 사건에 반응을 보이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돌연변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디오가 적절한 대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상대적인 것이 필요하다. (나파서서 2:11-16 참조) 연구 발표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일을 뒤刈환 대상으로 보다는 하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심지어는 주당 6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일을 기꺼이 감명해 넣 결코 없다면 진취적이고 흥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보다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와 건강

엔지니어는 스트레스가 모든 구조물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물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을 긴장시킨다고 하고, 구조물의 스트레스 점을 건강시킬 때 그 구조물은 손상을 입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가 일정 선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생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러한 상태에 이론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 자신이나 혹은 자녀의 일이나 성취도에 있어 외박을 요구하게 될 때, 그와 같은 건강 상태에 빠져서 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생애 동안 완전히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하신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님 예의 백스의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활 속에서 받아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남에게 배울 수 있는 그 무엇이 남아 있을까 하는 의회가 생길 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도록 이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까지로써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사라지지도록 예의한라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무릎가 보일 때(다니엘 5:27), 우리가 이미 이전에 해야할 것을 놓았으며 자신의 파업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 받았음을 기억하시다. 그러므로 줄더 흥륭한 계산이 되겠다는 결의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폐종한 부담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능력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무엇은 결코 우리가 견디어 낼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교리와 성조 50:40) 강요하지 않음.
것이다. "（오늘날의 시련에 대응할』, 울해의 필요, 프로보 : 브리간 영 대학교, 1978년, 156쪽) 때때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하려는 기여는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시도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지는 못하는 이유로 인해 마음을 헤치는다. 완전히 이르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바람인 반면에 우리는 자신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현실적인 것을 기대해야 하며 우호적인 태도까지 가져야 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함

현실감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에 우리에게 가하는 힘을 해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를 다루는 방법들도 있다. 다음 사항들을 기반에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없고, 어떤 것이 없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영적인 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인

기도하는 자주, 자신의 몸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다. 가기도, 전전 공부를 통해 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vật을 지지 없는 체계 암호는 가정

물화의 비근한 원인 중 하나로 되는 곳.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세우고 빌면 지지

말라고 항상 권고한다. 수업의 범위에 기울 수만 한다면, 이 일 하면 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제작성의 압박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신체의 건강을 유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휴식과 운동 및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필요로 한다. 휴식은 운동하는 것 역시 육신의 피로를 풀어 휴식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우선 순위의 특별을 정할 만한

것이자 하는 일을 모두 다 성취할 수

溦라도, 우선 순위를 정하려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가족별로 일정 목표, 주례 목표, 일일 목표 및 임직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려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울 때와 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했던 필요 사항이 생기거나 목표에 실패할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사항을 대비할 수 있다.

습관 및 일상적으로 판단되는 일에

변화를 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간 일에 기꺼이 기꺼이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시간의 여유를 갖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납득하는 것이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준다 한다.

생활에 악간의 변화를 줄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에 악간의 변화를 줄 것은 또한 기본을 세우고 하고 마음에 범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 자연에서 산책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히 명상에 잠겨 보는 것이, 그리고 야외를 잃는다거나 정신적인 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모두가 불안한 삶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려운 점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할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협조해 스트레스를 낮는 생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에 적이 보는 것이 또한 일상 생활에서 어느 것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이 개인 일거나 노동에 그들 노력을 적게 잡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이제 마치 희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절 노동과 일자리는 매우 소중하다. 이런 일들은 정부 상담가로부터 그들의 머리나 마음에 들어있는 생명을 뒤로 시켜 거기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제는 제 느낌과 생각을 일기에 쓰는 것이 제

지아에 관해 충실한 토대로 되어온다. 특별히 이런 이유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끝 때 떠きち며 낙관적으로 하여 그 느낌을 일기에 적습니다. (때때로 그저 '나는… 느끼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무엇이 저를 괴롭히는지를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스트레스 감소를 일기에 가득 채워서 가다 보면 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내게 된다. 물론 통해 제 자신에 대해 소상히 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요용 취하고 인생을 즐길 어떤

사람은 그저 좀 더 휴식을 취하고

생활이나 자녀들의 가운데 기쁨을 찾으며, 배우자와 친구와의 관계를 즐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하나님이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며(니파이산명 17:20 참조), 또한 인생의 경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파이산명 2:25; 교리와 성경 93:33 참조)

우모어를 잊지 말 것 인생이 비록

진지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모어
갑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순간은 많다. 만일 생활하는 가운데 매때로 운고 지낼 수만 있다면, 생활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정에 온갖 길들이는 것은 파도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마찰을 감시하는 홍수기 방방이 된다.

실의에 대처함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힘든 \n느낌들로는 설의, 좌절, 우울, 
죄책감 및 근신 등이 있다.

에스파 데프로 페르난데스 대관람은 
이렇게 발음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이 
물결같은 터라서는 물론 정적인 
편에서도 사람을 실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전 45:26 참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전쟁터에서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자살이 
대학생들의 가장 옳다고 되는 시대의 
통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결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막바지에 이르자 때, 
사탄은 성도들을 절망과 실의, 낙담, 
억압 등으로 성도들을 압박하기 위해 
행위를 범죄하고 있습니다.” (성모의 
병, “절망하지 마십시오”, 1987년 3월, 2쪽)

이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회의하는 경우가 아주 
번번하다. 애매모호하고 그 성격이 
불투명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려면 
문제는 허용된다. 자신들에게 이럴 
때부터 그들의 느낄을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아리랑을 당할 경우에도 이에 대비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한편 불행히도, 실제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부모들까지도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되거나 너무 
오래 경과될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부간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토론양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이나 자녀의 문제를 
인식하며 실망하고 싶어지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제도인 회개하고 
기도와 금식을 하며,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독서하고 인내하며 영과 육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고 친구를 
사귀며, 힘과 영감을 주는 신권 
축복을 받으므로써 이러한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 가까워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니다. 마침 제이 
예수님 장로의 다음 날 참배일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와 사랑이 창고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합 대회, 1973년 10월)

예수님 장로의 권고를 따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녀들의 발에 QUEL을 가르킨다.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가끔 마음이 상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아내, 신앙생활을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을 알 수 있는

가족을 관함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혹은 “반일 
...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라고 논며 애기 했으나.”

등과 같은 말은 오히려 상당히 
기 факт만 더 상하게 할 뿐이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 책임이 없으며 그로 인해 
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만일 자녀가 
자신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스로를 용서하고 회개함으로써 
과거 일은 멈추도록 도와 준다.

가족이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에게 인생에서 실패는 
목적을 상기시키고, 힘을 불어 
넣어 준다. 함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영원한 판정에서 
문제점에 대해 필요한 이해를 
주시기를 간구한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자녀나 친구가 문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느낄을 표현하고 싶은 
때 같이 있어준다. 때때로 그의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심란한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들을 
참여시킨다. 가족에게 함께 기도하고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도록 권유한다.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가식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거지를 지니고 있는 인간체계로, 
마치 주님께서 그들을 다하시듯이 가족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러한 문제라도 극복해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없으며, 누구도 복음이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복음은 인간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반대 세력과 저항의 
물결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사용으로 가려 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기”(누가 복음 2:52)해 준다. *
여러해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는 이발소에 앉아 이발사가 가위로 내 귀 뒤까지 머리를 절라 내는 소리를 들으며, 빨리 끝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허락하고 있었다. 내 기습을 감감하게 내리 누르는 것은 더위뿐이 아니었다. 이발사의 말에 의하면 그가 "스테이크 쓰레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임종의 물론 교회 선교사였다. 그 사람은 내가 전에 이발하기 원한 털을 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두려워하고는 습술 두드로 주지 않고 "머리나 깊으시지요, 나에게 정도할 생각일말 마세요!"라고 대꾸했다.

물론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아닌데. 나는 우타주 슬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났으며, 와드 건물에서 하는 보이스캐스트 보임에 철저한 적도 있었다. 절친한 친구들도 대부분 물론이지만, 그 친구들인 나에게 교회에 대한 말을 거래지는 못했다. 아마도 내 뇌도 너무 웅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번은 보이스캐스트 보임이 시작되기로 기다리면서 친구에게 벽에 걸려 있는 큰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여러 달 동안 매주 그곳에 앉아 그 그림을 보니까 왜이었다. 그 친구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몬석의 금판을 보여 준 친사라고 말했다.

선교사! 이렇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말인가? 지식인이 그간은 존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간 세월이 지났고 후에 나는 물론 교회와 처음으로 심한 대결을 하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두 명의 여자 물론 선교사가 문을 두드렸다. 그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나는 마음이 헐ICENSE 못했다. 마치 온가미에 걸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마니로 마음을 먹었다.

"생명을 믿으시니까?" 두 선교사가 먼저 시작했다.

"물론이죠." 나는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대답을 했다.

선교사들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읽으면서 신학은 서로 다른 인격체로 오신 세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상하로도 요셉 스페스의 첫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갔다. 나는 그들이 정점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란한 구절이 있음을 알아냈다지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다. 그러니 어쨌든 아버지와 아이들과 성경을 한 부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리고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을 탐지하고 와서 토론을 해도 좋겠느냐고 문자 선교사들은 좋다고 대답했다.

다음 주, 나는 종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촌과 함께 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서로 오가는 토론을 들게 되었다. 그때나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 선교사들에게 서려를 선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촌의 지식이 충분히 못해서 그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좀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기로 했다.

주 중에 나는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라면 나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내가 체험한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말했던 방법이 제대로 놀라운 대답을 했다.

"비안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 우리 교회 대부분의 회원들은 날리 삼위는..."
"어느 교회에 다니시다고 말하셨는데라? "라고 이발사가 물었다. 나는 숨질 훌도 주지 않고 "머리나 깔으시지요, 나에게 전도할 생각일炝 마세요 ! "라고 대꾸했다.

일체가 아니라고 맹는 쪽이야. "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목사로서 이전에 나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친구였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앉니까! " 목사의 이 말을 사용할 때 7장 55절과 56절에 대한 대답으로 하기에 더욱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선교사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을 선교사들에게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나에게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문문경을 한 권 선물하고는 따난머졌다.

몇 년 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나는 몇 아파트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보았다.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참다marsh이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술을 섞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러 소리가 난다. 문 앞에는 선교사들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이 말도 채 거네기 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가는 곳마다 몇몇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이발사까지도 나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썼으며, 선교사들도 몇번이나 바뀌었지만 계속 나를 방문했다. 이 년 전에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문에서 밀치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 작은가와fas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물론경과 소책자들을 차 안에 두고 나올 때 도착하지 않는다는”는 것으로 잠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면서도 선교사들이 찾아오는 것이 닫히지 않아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워도 못하게 했다.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무례하지 않은 편으로 이 사람들에게서 편지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좋은 생각이 머물렀다.
그렇지 않으면 없이겠어야.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교리를 옮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과 교리를 옮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하면 그들이 생각한 것과 겸경이 되지 않았어야. 나는 다음에 선교사들이 찾아올 때까지 준비를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일 그들이 옮지 않는 것을 중요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인가? 몇 년 전에 두 가지 선교사가 준 물론경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을 어떤 사람이나 상자 속에 처위 두었던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금방 그 책을 찾아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요셉 스파미스의 생애에 관한 기록들인가?
아니면 물론주의의 역사일까?
일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가 없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에 선교사들이 찾아올 때에는 그들에게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출근할 때 물론경을 가지고 갔다. 마침 그날은 한가한 시간이 좀 있었고, 그 책을 읽을 기회를 절국으로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책을 판처 둔다. 뒤에, 요셉 스파미스의 내용이 아니었다! 앞 페이지를 잃어버려 미대록에서 행해진 산상수운, 롤러버스, 미대록에서 나타나는 구제주의 같은 흥미를 고는 내용들이 있었다.
무엇을 찾아내야 할지 머뭇거려지만 했다.

그 책에서는 요셉 스파미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물론연회 소속하고 있는 주요소에 있는 소책자들을 몇 본이 되었다. 내가 알게 되었지만 종은 이 요셉 스파미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는 요셉 스파미스의 첫번째 시장이 된 것이다.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나는 보로나이 전사와 길판에 대하여 잊었다. 그리고 나서 시간대 하나는 뇌들 들들이 물론경을 찾아 나갔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대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옮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하면 내 의도가 모두 사라졌다. 물론경을 처음 펼쳤을 때 잡이 일어났던 호기심이 그 책을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하였다. 실제로 나에게

순을 빼쳐 이 책으로 끌어들인 동향 이 이상한 힘은 또래에게 무언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했다.
나는 듯만 있으면 물론경을 닫도록 하는 일이 몰두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보로나이라는 고대 예언자가 한악석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알려 달라고 간주하면 물론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당연한 선언이었다. 어느 날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는 물론경을 손에 들고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나들 이 책에 몰두하도록 한 힘이 무엇인지 알라 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과거에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이 기억 속으로 닫았다 들이 열려 들어나는. 나는 그때까지 내가 불장난 차지에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대한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마침 동안 나는 물론경 잃기에서 타냈다. 그런 뒤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 날은 교회의 10월 연차 대회가 열리기 전 목요일 밤이었다. 직장 일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이 들리나, 그 느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물었다. 그것은 가운데도 그 느낌은 점점 강하게 느끼자서 시작했다. 린바나도 놀라운
나는 “오늘은 머리를 특별히 잘 깔아 주세요.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나가요.”라고 말했다. 이발사의 입이 뜨 빨어졌다. 그는 “어느 교회입니까?”라고 물었다.

느낌이었다! 나는 “만약 이것이 친구에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아픈 아픔 살아 되어 죽을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과거에는 귀찮게만 생각되었던 선교사들이 빈고 있던 그 확신이 나에게 간증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게 되었다. 오월 스피서는 하나님과 아들을 보았으며,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주는 정말 즐거운 주일이었다. 나는 서둘러 이발소로 가서 “오늘은 머리를 특별히 잘 깔아 주세요.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나가요.” 이발사는 임을 막 말린 채 짧이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어느 교회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발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발사가 나의 첫번째 감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이 년 전에 그가 스테이크 선교사로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그의 면전에서 묻은 많은 무례한 사람으로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유타주 쓰론에 사는 제리 백킨은 위성인 테라스 유타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선교사이다.
통가 섬의 성도들

신앙의 유산

에릭 비 쉬웨이

통가에서 봉사했던 초기 선교사들은 1991년 8월에 있었음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야마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브리함 스무드 장로와 엘바 비틀리 장로가 선교 사업의 문을 연
지 5년 7개월 만인 1897년에 선교사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모아 선교부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1891년부터 1897년까지 어림잡아 20명의 선교사들이
프렌들리 군도(영국인 탈럿가 체임스 목 제독이 1773년에
이 섬을 방문하여 붙인 이름)에서 봉사하며 겨우 15명의
통가인에게 청해를 배포했을 뿐이었다. 통가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에 이루어 놓은 기독교적 전통이

위: 스미스 장로와 버틀리 장로는 통가에 도착한 첫날에
조지 1세 왕을 방문하여 그 나라에서 북음을 전파하기 위한
허락을 받았다.
오른쪽: 현재 원주민 선교사들은 현 서초와 네타이에
그들의 전통적인 북장인 투패누와 타오발라스를 걸어
임한다.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다음 기사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곳 주민들이 미국에서 건너간 백인성도들을 멀리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왕과 그의 종교에 대해 느끼는 의무감이었으며, 여기에 그의 양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목사에 대한 의무감도 이들의 마음을 선교사들로부터 때에 놓았다.

1907년에 다시 문을 연 선교부는 처음에는 성장이 둔했으나 점차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결국은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지금은 통가와 인근 지방을 함께하려 약 3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으며, 10개의 스테이크에 90개의 예배당이 있고 1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 및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만큼 광범할 만한 기적을 이루었다.

오늘날 통가에서 교회가 회원 수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활동과 헌신에 있어서도 그처럼 눈에 띄는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진 원인은 통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데 놓여 있는 거친 자연 환경 및 개인적인 승상과 편견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강한 신앙함을 알 수 있다.

아기를 던져보세요

주님의 주신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거친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이아기는 통가인들의 신앙 이야기의 혼란 주제이다. 통가 성도들은 폭풍우가 휩쓸어지며 거친 바다를 여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충복을 받았다.

지금은 하와이 라이에 있는 푸라네시아 문화 센터에서 열하고 있는 셀라 파이나 기자회는 1965년에 태어나 함께 성교사로 부름을 받아 통가의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페인가 부부는 고열로 앓고 있는 셀라의 뒷부부인 3명의 아들 들이 배고 테리고 바다로 떠어져 있는 포투하야 섬으로 가고 있었다. 섬의 해안선은 절벽으로 되어 있었으며, 절벽 근처에는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

포투하야로 가는 여행자들은 섬 근처에서 모터 보트를 내려 현지 청사진가를 가르키며 타고 절벽의 가까이로 가서 길은 물 속에서 빠져 나온 바위를 향해 해일을 쳐야 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누에서 날지 않음을 잡기 위해 절벽 위에서 서 있는 섬 주민이 빨른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생이 위험해졌다.

왜냐하면 파도가 4미터 내지 6미터에 달하는 절벽 높이까지 올라갈 때를 못추어 손을 잡아 견디어야 했기 때문이다. 페인가 자매는 그러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나를 만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출발하는 날 아침에도 아직도 요한의 열은 여전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에서 빠르게 날라가기 시작했다. 홍역이었다. 난편에 어두운 침천에 해도 마음을 뒤집지 하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담안에 감싸 안고서 우리를 포투하야까지 데려다 줄 조그만 배에 들었다.

멀리서 섬을 향해 접근해 가자 그 무시무시한 절벽과 바위 투성이로 된 해안선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엎치청년 파도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몇몇 섬 주민들이 이미 절벽 위에 모여 우리와 우리가 가져온 점을
가다라고 있었다.
그 뒤에 살고 있는 한 젊은 교사가 우리를 혜안으로
대라길 현장 향어가 달려 온그만 카누를 타고 우리가 탄
배로 다가갔다. 우리가 카누를 타고 바위 접벽 가까이까지
갔을 때, 그 젊은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파도 높이를 제한해 보겠다. 그리고 큰 파도가
밀리며서 카누가 접벽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가면
순남들은 바위로 가너 뛰어가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갖고 오신 물건들을 담겨 주시기 바랄다.
비가 내리자 나는 두려움으로 온 몸이 마비될 것만
알았다. 드디어 우리는 위험 천만한 상황 장소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교사는 남편에게 "아기를 내릴
준비를 하세요. 저 사람들이 아기를 먼저 상류시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다.
그 말이 그저가 부계계 언덕 위에 있는 남자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손님!
아기를 받아 들어요! 아기를 씹 담요와 옷을 모두
받기시다.
나는 "얼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기는 흉터를
衾고 있어요. 아기 옷을 모두 벗길 수는 없어요."라고
소리질렀다.
젊은 교사는 남편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
씩버려야 합니다. 아기를 해변쪽으로 던져야 하니까요.
담요가 그 밖의 열린 옷 때문에 사람이 아기를 놓쳐
바위 접벽으로 떨어뜨리거나 몸 속에 빠져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접벽 위에서 다시 의치는 소리가 들었다. "서둘러 아기
옷을 벗겨요," 그러나 남편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아마 남편도 나막히 두려워했던 것 같았다.
젊은 교사가 남편이 맡고 있는 아기를 낚아채서 계절바
기저귀를 제한한 모든 것을 벗겼다. 돌아다니는 파도를
타고 우리가 탄 카누는 위로 처مجتمع으므로 충분한 높이만큼
올라가지 못한 채 물결이 빠져 나가자 다시 바다쪽으로
물려났다. 또 다른 파도를 타고 다시 멀어이 올랐으나,
이번에도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음 파도를 타고 접벽까지 올라간 순간, 나는
"아기를 믿으치요."라고 의치는 소리가 들었다. 나는 베를
움켜고 고명을 비명을 질렀다. 차마 그 평경을 못 수가
없었다. 뒤이어 "걱정 빼오아, 아기는 무사하니까."라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파도가 자매는 감사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건너편 차례였다. 점에 젖은 나머지
파도가 자매는 건너편 시계를 빼 번이나 놓쳤다. 그러자
접벽 위에 있는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아주머니.
아기 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소요?" 페이지가 자매는
입으로 "아, 하나님, 주님의 순종으로 가라앉힌 제 아기를
위해 저를 도와 주시유소시."라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며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뛰어내렸다.
타우포로 향이 경제도 아닌 테말리시와 함께
하이라이에서 천사교로 봉사하는 동안 강한 신앙이
없는 불기능한 여행을 한 적이 있다. 향이 경제는
칠파래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선교사 기간을
연장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 있는 활동이 지로한
회원들을 활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1958년 어느 토요일에 다섯 살 난 아들 타나멜리와 함께
팻야이에서 열린 구역 모임에 참석했던 향이 경제는
칠파레아로 돌아가 일요일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임시 시간을
이용하여 모범서를 건너 우 오레이바로 건너가자, 친구인
시모네 모랄라 하발리가 해법을 건너 칠파레아로 가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동향이 심하여
바다에는 오가는 배 한 척 없었다. 그러나 향이 경제는
버리 빌레마에로 돌아가 일요일 예배 모임을 감리하고 들게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째 되는 아내를 만나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바다를 건너가 로랑스 마을을 막았다. 나는 지금 주님의 신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니에라에서 시오네 포탈라의 현장에서 나의 친구가 달린 카누 옆에 함께 부름을 들고 하나님이 아버지계 우리가 무사히 해칠 수 있도록 간구하자고 제의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카타르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와서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타니에라를 얻지리에 안히고는 바다로 배를 절어 갔다. 우리는 강한 햇볕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가에서 가장 거칠은 바다를 조금만 카누를 타고 쉽게 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조용한 수면 위를 길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기의 바닥이 들리지 않고 카누에서 물을 흘뢰는 일도 없었다. 우리가 파도를 뚫고 싶게 해변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질문을 퍼부어왔다. 파도가 위너 저버리에서 3일 동안 빌레마에 해안을 빼앗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의 감사를 드렸다."

통가 성도들은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자신 뿐만 아니라 티비타 태이마니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구조될 수 있었다고 간증한다.

타이마니 형제는 병든 한 여인을 15마라타리 모터 보트에 태우고 염창난 파도와 흐 Ipsum을 타고 화아파바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경험에 관해 말한다. 파도가 배를 덮치는 바람에 연료 탱크와 거기에서 엔진으로 연결된 호스가 바다로 빠졌으나, 타이마니는 그 사실을 몰랐다.

황자와 배에 태우고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연료 탱크와 호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밀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배는 출발했으며, 우리는 연료도 없는 엔진을 탐고 거대한 파도와 싸우면서 해협을 하져 나갔지만 탈락시키는 소리 한 번 들었을 뿐입니다. 만일 엔진이 터졌다면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든가 아니면 놓인 것이 있는 임초에 부딪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배가 하야돼바에 안전하게 맞을 내리고시야 자는 연료 탱크가 없어져서 배 후미에 부착한 작은 엔진에 연료 한 방울도 공급하지 않고서 그 가진 바다를 해쳐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분명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에 어떻게 보호받게 되는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

통가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 습성과 편견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더욱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진다.

부어라 페라우니 콩아이카 가베는 남편인 빌리아나는 "정신이 부드럽고 밝은 성격을 지닌 반면" 자신은 반 "자신의 주장을 저세계 말이롭고 아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고집 세고 논쟁을 줄거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이들 부부가 1946년에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콩아이카는 한 쾌을 빼앗는데 그것이 이 자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콩아이카 자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과 화가 날 듯한 말투가 남편에 대해서는 물론 선교사업을 하는 테에도 장애물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쫓속에서 예밀시 던 통가 선교부장이 내께 오디나 나에게 자기 가족과 함께 주님이 직접 충성하시는 특별 대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기꺼이 그들과 동행했다.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도착하자 마치 문처럼 생긴 크고 울창한 돌이 보였다. 그 앞에 그리스트가 계셔서 우리와 차례로 개회 멘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 차례가 오자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점진을 받기 위해 들어갔다. 그런데 구세주께서는 안쪽한 표정으로 나를 보시며, "사악한 일을 가진 여인이여, 너를 보고 싶지도 않으나, 나는 이처럼 난편에게 그토록 정결치 못한 말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다른 성행을 할지라도, 내 장소와 날을 빼앗는 행위는 용서 못하니 내 면전에서 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큰소리로 간절한 요청이 결국은 슬픔 속에 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화가 나는 소리에 잡아 벌어서 곤장 난편에게 용서를 빈다. 나는 날 못사는 울고 눈물로 줄거웠으며 난편의 부드리운 성격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그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난편에 대한 태도를 변경시키지 않았으며, 난편을 더욱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내조하고 있다.

시오네 올레리 피우타포 투포우 역시 영적인 여행을 하는 테에는 육체적인 여행 이상 큰 신앙이 요구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가 "착실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부모에 의해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방황하려고 다른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약 40년이 지난 1984년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반 불문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화가 상영되기로 정해진 그 날에 나는 내가 속한 동호회 사무실에 앉아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보다가 그처럼 좋은 교회가 공공연하게 공개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상하다 못해 약간의 생각조차 들었다.

그같이 육체적 마음을 가지고 야생 있는데, 감자가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 손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흘리게 나왔다. 그 바람에 영문도 모르는 동호회 회원들도 어리둥절해 했으며, 나는 그 차리를 막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도도록 괴로웠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괴로웠다. 나는 매우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도움을 갑작히하기 위해 급히기 시작했다.

금식을 마치고 나자 협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내 교회이고 또한 내 부모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교와 격려를 하셨다.

일요일에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을 합참 걸어갔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 형제 자매들이 슬퍼했던 것만큼 이번에는 내가 교회로 돌아간 것을 기뻐했다. 그 이후로 나는 교회 모임에 베껴진 적이 한번도 없다. 내가 "다시 개심한" 이후로 나의 가족은 참으로 많은 추보를 받았다. 이때 급속히 나는 나를 교회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교인이 되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급속도로 교리를 통해 신선에 대한 증거를 찾도록 계기를 만들어 준 그 이상한 경험이 대해 생각한다.

주님의 마련한 주심
통가 성도들이 지난 신앙의 유산 가운데 또 한 가지
타우골로 랑이는 아돌 터나엘라와 함께 폭풍이 이는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였다.
입청난 파도가 해변을 덮쳤을 때에도,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평화와 힘을 얻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되었든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이다.
사이아 파운오는 1964년에 선교사로 봉사할 때, 외딴 산인 나무아 토푼타푸에 있는 6명의 선교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 다운 성사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 지를 모를 때가 있었다. 어느 난 그들은 급식을 하면서 팔레하우에서 가자 호호를 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급식을 중단하려고 해도 먹을 음식이 없었다.
선교사들이 오두막 밖으로 나올 때에 파운오 장로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선교사들을 데리고 집 뒤편 해변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동반자에게 고기 가락을 가져 오도록 하며 모두 함께 바위가 많은 나무아 토푼타푸 해변으로 갔다.
불편하게도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반조가 되어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다. 따라서 가재간 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모두 실망한채 앉아서 쉬고 있었으며, 포투아 장로만이 해변을 따라 기념하고 있었다.
감사하기 포투아 장로가 와서 보라고 우리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급히 달려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산자리 근처의 한 마리가 해변으로 해엄치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길이가 1미터이며 두개가 30센티나 되는 그 물고기는 수면 꼭대기를 빨아먹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여서 이 조그만 의심 많은 꼭대에서 봉사하는 꼭대리 청은 선교사들에게 그 물고기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바바우 병원의 한 수술실에서는 살려서 하필리 박사가 드린 열린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다. 하필리 박사의 그의 아내인 셀루 자매는 1년 전인 1977년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성전에 기기 의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을 하는 중에 한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는 이것은 그가 성전에 기기 전에 동과해야 할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심해 있는 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두 외과 의사와 마취 전문의인 하밀리 박사는 마파 바카로이라는 노인을 수술하기 시작했다. 간호원이 마파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몇번도 하지 않고 소리를 들고 사표본 하밀리 박사는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 후 그는 잘못된 곳을 찾으려고 에스icester 모든 것을 점검하고 다시 점검했다. 결국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확신도 없이 기도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주었다고 여겼던 장님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다.

나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했다. 속죄감과 그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내 마음속을 지배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파의 심장은 다시 위에 해 달라고 간청은 하면서도 의사로서 불 땐 그가 죽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는 내가 그를 죽였다 생각하며 너무 두려웠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마파의 생명이 내가 드리기 기도의 진실성과 내 신앙에 담려 있으며, 이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은 내가 성전에 가치로 되어 있는 전날에 발생한 일종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파의 심장이 막은 지 18분이 지났다. 나는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을 살려만 주님다면 내 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려있 주임을 가까이 느끼며 기도했다. 주님이 가두하면서 나는 한 갑각의 의심이라도 모두 없애 버리고 내가 눈을 뜨면 마파의 심장이 다시 꾸기 시작하라는 믿음을 생길 때까지 기도했다.

기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25분 동안 힘주었던 마파의 심장이 다시 꾸기 시작했다. 나는 기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의사와 간호원들께 전날에 일어났던 일이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 다른 병동을 순회하다가 마파와 친해 질 만한 그의 아내를 보고는 가슴이 풀려졌다. 이제 마파는 건강하며 말도 잔하다.

산양의 유산

통가에서 건축 선교사로 등장하던 이목 라발 밀레링은 1957년 일반의 건축 선교사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기 위해 우이아 선교로 갔다. 그곳에서 바이카토라는 이름의 백 살을 죽어 빠보는 합리니가 건축을 기도와 주셨다고 끝질기게 죽었다. 선교사들은 그 합리니에게 무거운 막들을 나르거나 물통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합리니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려 했다.

건축이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통가 출신의 건축 선교사 몇 명이 밀레링 형제에게 와서 그가 바이카토 합리니에게 건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준 적이 있는느라고 물었다. 밀레링 형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놀랄까도 그들은 바이카토 합리니가 예배당의 생김새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 합리니가 다른 모든 인물들에게 곧과 교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연단은 어디에 설치 것이며 예배당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합리니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나는 통역자를 통해 남태평양 지역에서 건축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20년 전에 그 합리 사람이 통가 군도로 여행중이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미스 장로는 축복을 하면서 바이카토 합리성이 충실한 신앙을 지키다면 살아가 그 신에 세워질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카토 합리사는 축복을 받는 동안 식사를 통해 그 예배당을 도둑 보았다.

일벽 년 전에 통가 방을 밟았던 최초의 선교사들이 역시 분명 그같은 시험을 보았될 것이다. 올해에 있을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후세에 알려지게 될 이들의 절차한 노력이 오늘날 급속한 회원의 증가를 위한 길을 다다란 것이다. 누각아로야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은 그러한 성장을 상징하며, 오늘날 통가 신도들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을 직접하게 표현하는 기념비이다.

통가의 유산 : 기독교의 토대

오늘날 매플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통가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할 때에 통가에 기독교를 소개한 사람들의 공적을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은 비록 복음의 희생에 관해서는 몰랐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웨슬리 교과 선교사들은 카우파카알로메로(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진 사명)로서, 그곳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학교를 세우고 장례를 가졌습니다.

황당이(백인) 개신교 선교사들은 통가 출신의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였으나, 통가인들이 그들의 추앙에 대해 품고 있는 축성심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1831년에 추장 타우피아우아가 기독교로 개종하자는 일에 반발하면서, 그로 부터 오랜 토착 신앙에 반대하는 활발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타우피아우아는 그의 세례명을 조지로 정했으며, 익고 쓰는 법을 배워 웨슬리 교회에서 정식 전도사로 봉사했다. 그는 근엄한 의복과 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정임으로서, 교회내에서 큰 힘이 되었다. 1845년 통가를 다스리는 왕이 투기 카노카폴투가 되자, 그는 비 기독교적인 세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결국은 이러한 세력은 위협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웨슬리 교회는 조지 왕이 1885년 1월 4일에 통가 자유 교회를 세울 때까지 통가의 공인 국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새로 설립된 교회는 비록 형태나 교리면에서는 여전히 웨슬리 교회의 것을 따랐으나 제반 교회 행정에 있어서는 독립적이었다, 이 분열에 따른 사회, 종교 및 정치적인 여타로 인하여 혼란과 종교적인 파편 현상 및 계속되는 적대감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플성도 신교사인 브리건 스무스 장로와 엘바 비블리 장로는 1891년 7월 15일에 에스와이누아호를 내려 통가에 상륙했다. 당시 평화와 조화를 끨어내고 있던 통가인들은 사회 전체가 더욱 분열과 변화를 겪거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는 종교적인 반목으로 인해 신교부가 비록 폐쇄하기는 하였으나, 매플성도들은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했다. 그들은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주었다.

예게다 비 성벽이 있는 브리건 영 대학의 하나이 캐피스의 학자 담당 부총재이며, 이 기사는 그의 저서인 통가의 신앙의 유산에서 발췌되었다. 성서 기사는 통가의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학교 부설 풀리바시연구소에서 출판하였다.
아직도 젊다

스티븐 케이 크리스찬

라

지로 루시오 리베라 달 카르페오 마르틴은 독특하고 강건하며 매우 활동적인 사람으로, 노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터로 나간다. 그리고 복음화 사상하는 91세의 나이에도 지킬 줄 모르는 선교사이다. 리베라 형제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리베라 형제는 1899년 12월 17일 폐루의 아레쉬와에서 태어났으나, 나중에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에 자라잡고 있는 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600 킬로미터 떨어진 쿠스코시에 정착하였으며, 바로 이곳에서 선교사를 맡았다. 그의 개종 이야기와 그후 헌신없이 교회에 헌신한 그의 일들을 통해 폐루의 초기 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희생을 갖춘 영적을 잘 알 수 있다.

리베라 형제는 “오셀 스펙스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세상의 모든 동과 가운데 길리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같은 추구는 그가 67세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아마 주님의 영이 아들과 함께 하셔서 저를 그리로 테려가셨나 봅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핵투와 함께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두 명의 선교사를 보고 인사를 하자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 주었습니다. 이어서 마치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뿌리내린 종교적 인생관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 참석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두 번째로 참석을 하여 특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베라 형제는 24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하고 힘입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는 대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아버님께서 저의 말씀을 이겨서는 것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아버님께서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며,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아들 핵투는 말한다.

폐루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6년이지만 1967년에 리베라 형제를 처음으로 만났던 선교사들은 쿠스코에서 봉사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으며, 리베라 형제는 이 도시의 초창기 회원 중의 한 명이었다. 리베라 형제는 선교사들과 처음 만난 이래 항상 선교 사업을 좋아해 왔으며,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저는 발일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더를 가든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끌어지지 않는 것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당면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맞을 드리겠습니다. 발일정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의 모임에 참석하시오. 그러면 선교사들이 여러분을 가르지고 청해를 반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힘들었고 나중에는 밝다고 하였습니다. 밝으므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리베라 형제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뒤 아나라 실험으로 신학교를 예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16세기에 스페인에서 완 정복자 프란치스코 교회와 함께 신학교로 건너왔던 스페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나포레오네에 의해 리베라 비에호의 격식 후속입니다. 반면에 쿠모로 시는 스페인 사람들이 건너가 오래 전에 영국 제국의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현재 리베라 형제는 보석 제작을 하기 위해 도와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기술과 섬세함으로 탁월한 국제화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고 제안해 오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쿠모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청례를 받은 이들 자녀들 앞에서 그는 쿠모로 지부의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회원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의 도구로 쓰이겠다. 리베라 형제는 그때에 있었던 어떤 기도 경험을 회상한다. “당시 갖 친구들은 회의 중에 과밀로 쓰나라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기술자였으나 직업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려 리바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나가기 전에 저는 그에게 ‘형제팀은 리바에서 15일 동안만 가게 될 것이며,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작업을 가져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험으로 15일 만에 돌아온 콘차 형제는 리바에 있는 대학교의 자원봉사자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및 평화 정착 사무소장이라는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리베라 형제는 주님의 그에게 하실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고 믿고 있다. “주님은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회원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해토로 리베라는 그의 부친의 선양은 항상 염마에 찬 것이었다고 말한다. “하늘의 무너져도 아버님은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아버님은 교회에 들어오신 이후로 항상 주어진 말씀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대개 사신을 소유하고 있는 리베라 형제는 현재 스테이크 가족 역사 책임자로 복음하고 있다.


해토로는 그의 부친이 경건을 꾸준히 읽는 것을 알았다. “아침에는 일이나 보면 아버님께서는 토론이나 교회 참석 및 기타 교회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참석하지 못할 때에도 아버님께서는 역시 교회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다음은 길게 못합니다. 아버님이 경건을 얼마나 사방서까지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물론경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은 리베라 형제의 의도적으로 활동적인 것만큼 내적으로도 점검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있다. 실제로 그가 좋아하는 성구 중의 하나도 “길을 때 참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젤 때 하나님께의 깊은 저키기를 배우라.”(엡서서 37:35)라는 구절이다.

“일마다 아름다운 말씀이니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인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리베라 형제는 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장수하는 것을 무시하지만 제가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안 계신다면 우리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리베라 형제가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급망여러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복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임무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십”, 테드 해넘거 작
이들 말일성도 통가인 선교사들은 그들의 고항인 십에서 일백년에 걸친 선교 사업의 토대를 굳게 세우고 있다. “통가 섬의 성도들: 신앙의 유산”, 36쪽